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설명’은 기본적으로 발생한 사실에 대해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를 기술 또는 진술한다. 또한 설명은 피설명항을 설명함에 있어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이다. 한편 “만유인력의 법칙 때문에 사과가 땅에 떨어진다”라는 설명은 우리의 직관에 부합하며, ‘좋은 설명’ 내지 ‘최선의 설명’과 같은 표현은 전혀 어색하지 않다. 어떤 학자들은 설명을 ‘인과적’ 설명이라 부르며 이 둘을 구별하지 않는다. 그런데 ‘좋은 원인’ 또는 ‘최선의 원인’과 같은 표현은 매우 어색하다. 설명과 인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은 바로 이 지점을 과고든다. 이들에 따르면 설명은 인과와 달리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사건 간 인과 관계는 결국 우리의 인식 체계 내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통상적인 직관 개념과 결부될 수밖에 없다.

설명에 관한 이론은 ㉠ 법칙적 설명 이론, ㉡ 의존적 설명 이론, ㉢ 과정 연결 이론과 같이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법칙적 설명 이론에 따르면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은 피설명항에 대한 충분성을 연역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는 설명이 연역 논증의 형태를 갖는다는 아이디어에 바탕을 둔다. 그러나 이 접근에는 충분성 관계에 호소하지 않는 좋은 설명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의존적 설명 이론은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설명 성립에 있어 핵심은 충분성이 아닌 의존성에 있다고 본다. 만약 매독 환자의 25%만이 부전마비에 걸린다면 법칙적 설명 이론은 이에 대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는 반면, 의존적 설명 이론은 치료되지 않은 매독이 부전마비에 걸릴 확률을 높였으며, 만약 매독을 갖지 않았다면 그 환자는 부전마비를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할 것이다.

하지만 의존성에 기반을 둔 설명 체계에 대한 반례는 소위 ‘선택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 중 ㉣ 돌던지기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철수와 영희가 꽃병을 향해 동시에 돌을 던졌으며, 두 개의 돌 모두 꽃병에 정확하게 날아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신체 조건의 차이로 인해 철수의 돌이 꽃병을 먼저 깨뜨렸다. 이 경우 인과적 직관은 비교적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병이 깨지는 사건은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과 의존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 철수가 던지지 않았더라도 영희의 돌에 의해 깨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과정 연결 이론은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꽃병을 깨뜨린 사건의 원인이 되는 이유를 돌이 날라가는 물리적 과정에 의한 ‘적절한 연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한편 과정 연결 이론은 과정 연결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의존성 설명 이론은 의존성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거나 다른 사례와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존의 논의는 모두 설명을 인과를 파악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과거에는 인과관계가 결정론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비결정론적인 인과도 허용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비결정론적 인과를 수용한다면 법칙적 설명 이론을 이용할 길은 차단된다. 법칙적 설명 이론은 결국 이상적인 인과와 그렇지 않은 인과만을 상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과 이론은 의존성 개념에 호소하는 이론과 과정 연결에 주목하는 이론으로 나눌 수 있으며 최근의 연구들은 이 지점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

돌던지기 사례가 과정 연결은 존재하지만 의존성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그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 스위치 사례가 있다. 이 사례의 독특한 특징은 ‘스위치 구조’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 구조

는 두 개 혹은 그 이상의 선택지가 동일한 결과를 야기해 어떤 선택을 따르던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게 만든다. 스위치 사례는 넓은 의미에서 선택 사례에 포함되지만 통상적인 선택 사례와 구분된다.

한편 의존성은 존재하지만 과정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 사례로는 ㉦ 폭격 사례가 대표적이다. 영수가 적군 기지에 대한 폭격 임무에 나선다. 민희는 영수의 폭격기를 엄호하기 위해 함께 출발했고 적국이 영수의 폭격기를 감지하여 격추시키려 하자 민희가 재빨리 적국의 요격기를 격추하였다. 덕분에 영수는 폭격 임무를 무사히 완수했다. 이 사례에서 민희의 엄호가 없었다면 철수의 폭격기는 적군에 의해 요격되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수의 폭격 임무의 성공과 민희의 요격기 격추 사건을 연결하는 적절한 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례들에 관해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직관, 즉 설명적 직관을 비교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돌던지기 사례에서 철수가 돌을 던지는 사건이 꽃병을 부순 사건을 설명할 수 있는 설명적 직관은 아주 강하지도 않고 아주 약하지도 않다. 반면에 폭격 사례의 경우, 민희의 요격기 격추 사건이 영수의 폭격 임무 완수를 설명할 수 있다는 직관은 매우 강하다. 따라서 과정 연결보다 의존성이 설명적 직관에 힘을 더 실어준다고 볼 수 있다. 스위치 사례는 어떠할까? 이 사례는 돌던지기 사례와 비슷해 보인다. 그러나 스위치의 구조가 주어진 상황에서 스위치 상황은 돌던지기 사례에 비해 설명적 직관이 매우 약하다. 그리고 이는 비단 설명적 직관에서만 비교되는 것이 아니라 인과적 직관에서도 구분된다. 일반적인 선택 상황에서 선택하는 원인의 경우 설명적 직관은 약화되지만 인과적 직관의 힘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위치 상황에서 두 직관은 모두 약화된다. 그러므로 인과적 직관에는 과정 연결이 보다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선택: 어떤 사건이 다른 사건의 발생을 막는 상황

16.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기존의 논의는 설명과 인과 간 관계가 뚜렷하지 않다고 보았다.
- ② 설명과 인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견해는 인과를 정도를 허용하는 개념으로 간주한다.
- ③ 법칙적 설명 이론은 설명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 반드시 피설명항에 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④ 의존적 설명 이론은 과정 연결 이론과 달리 설명항이 피설명항을 확률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고 본다.
- ⑤ 법칙적 설명 이론과 의존적 설명 이론 간 모순은 과정 연결 이론이 등장함으로써 해소되었다.

16. 윗글을 바탕으로 ㉠~㉣를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선취 사례에 해당하지만 ㉡는 그렇지 않다.
- ② ㉠과 ㉣는 모두 의존성이 존재하지만 과정 연결은 존재하지 않는다.
- ③ 의존적 설명 이론은 ㉠과 ㉡에 대한 설명적 직관을 비교하기가 수월하다.
- ④ 과정 연결 이론은 ㉠과 ㉣에 대한 설명적 직관을 비교하기가 어렵다.
- 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 모두 각각 설명적 직관보다 더 강한 인과적 직관을 갖는다.

1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선생님-학생 간 대화에서 빈칸에 들어갈 말 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단, 다른 모든 조건은 동일하며, 설명적 직관과 인과적 직관의 힘은 모두 최솟값 0에서 최댓값 1 사이에서 움직인다고 가정한다.)

<보 기>

선생님: 돌던지기 사례, 스위치 사례, 폭격 사례 각각에 대한 설명적 직관과 인과적 직관의 힘을 다음 <표>와 같이 나타내었습니다. 각 사례를 검토해보고 사례 간 비교를 통하여 직관의 힘을 파악해 봅시다.

구분	돌던지기 사례	스위치 사례	폭격 사례
설명적 직관	0.5	㉠	㉡
인과적 직관	㉢	㉣	?

<표 1.>

학생: 먼저 돌던지기 사례를 살펴보면 이고, 이 사례를 폭격 사례와 비교해보면 입니다. 또한 과정 연결은 존재하지만 의존성은 존재하지 않는 두 경우를 비교해보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과정 연결이 존재하지 않지만 의존성이 존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을 갖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 ㉠ | ㉡ | ㉢ | ㉣ |
|---|-------|-----|-------|-----------|
| ① | ㉢>0.5 | ㉣<㉡ | ㉢>㉣ | 강한 설명적 직관 |
| ② | ㉢>0.5 | ㉣>㉡ | ㉣<0.5 | 약한 설명적 직관 |
| ③ | ㉢<0.5 | ㉣>㉡ | ㉢<㉣ | 강한 인과적 직관 |
| ④ | ㉢<0.5 | ㉣<㉡ | ㉣<0.5 | 강한 설명적 직관 |
| ⑤ | ㉢<0.5 | ㉣<㉡ | ㉣<0.5 | 약한 인과적 직관 |